

제주 카지노산업 새로운 전기 맞나

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자료조사차 싱가포르 방문
복합리조트 산업 급부상 속 카지노도 상품화 여론
제주 카지노 규모 초라한 수준... 경쟁력 확보 시급

최근들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위해 직접 카지노 시장 방문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카지노 관리감독 및 카지노 시설 방문을 통한 카지노 관리감독 정책 및 지역사회 영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현 지방문에 나섰다.

호텔 앤 리조트로 옮기면서 800㎡였던 기존 면적을 5580㎡로 약 7배 확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 그룹으로부터 롯데호텔제주의 '파라다이스 롯데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해당 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기면서 면적을 약 4배(1200㎡→4800㎡)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형화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도의회 문광위는 지난 6월 13일 제373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심사 보류 사유는 상위법 위임 부재로 관계 법령 해석에서 의견 대립과 적정 카지노 규모와 지역 환경 확대에 따른 공론화 과정 필요성 등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규모는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 경쟁 지자체에 비해서도 초라한 수준에 머물

고 있어 관광상품화를 위해 업계의 변화의 노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게다가 카지노와 호텔, 쇼펄, 컨벤션, 공연장 등 대형 복합리조트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한 육성방안을 찾을 때라는 의견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국내 지자체들도 카지노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경용 위원장은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현재 카지노 조례가 심의보류 중에 있고,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의회보고가 예정돼 있어서 이에 대한 심의 및 현안보고 심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주 카지노 정책 및 시설 규모화, 관리감독 강화 등 방향 설정에 있어 자료로 활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로 확대

도 "6400여명 추가 혜택"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64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도는 대상 확대로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면서 중단된 6426

명(12.10월생~13.8월생)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432억원(국비 302억, 도비 130억)을 투자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인재양성 '제주더큰내일센터' 출범

내달 참여자 100명 모집
9월 24일 정식 기관 출범
2년 동안 '선지원 후숙련'

오는 9월 24일 정식 출범을 앞둔 '제주더큰내일센터(이하 내일센터)'가 오는 8월 1일부터 100명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내일센터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센터운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여자 모집 계획 등을 밝혔다.

센터 사업은 2년 동안 월 150만원 수준의 생활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교육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혁신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 경험 확대 및 역량 강화, 경력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선지원 후숙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로 정식 기관 출범 전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대상은 만 15세(2005년생) 이상 34세(1984년생) 이하 청년이다.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없이 교육 훈련기간(최소 6개월~최장 2년) 동안 전일(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선발은 총 100명으로 도내 75%, 도외 25%로 구성할 예정이다.

8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서류접수 후 2단계에 걸친 면접 전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6개월 간 기본공통교육과 취업·창업·장차 등 유형별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1년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수행형 인턴십, 실제 창업창직 준비 등 3, 4단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총 2년 동안 실제 취·창업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며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인재로 양성, 배출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구좌 어제 낮 32.9℃ 올해 첫 '폭염주의보'

제주지역 열대야도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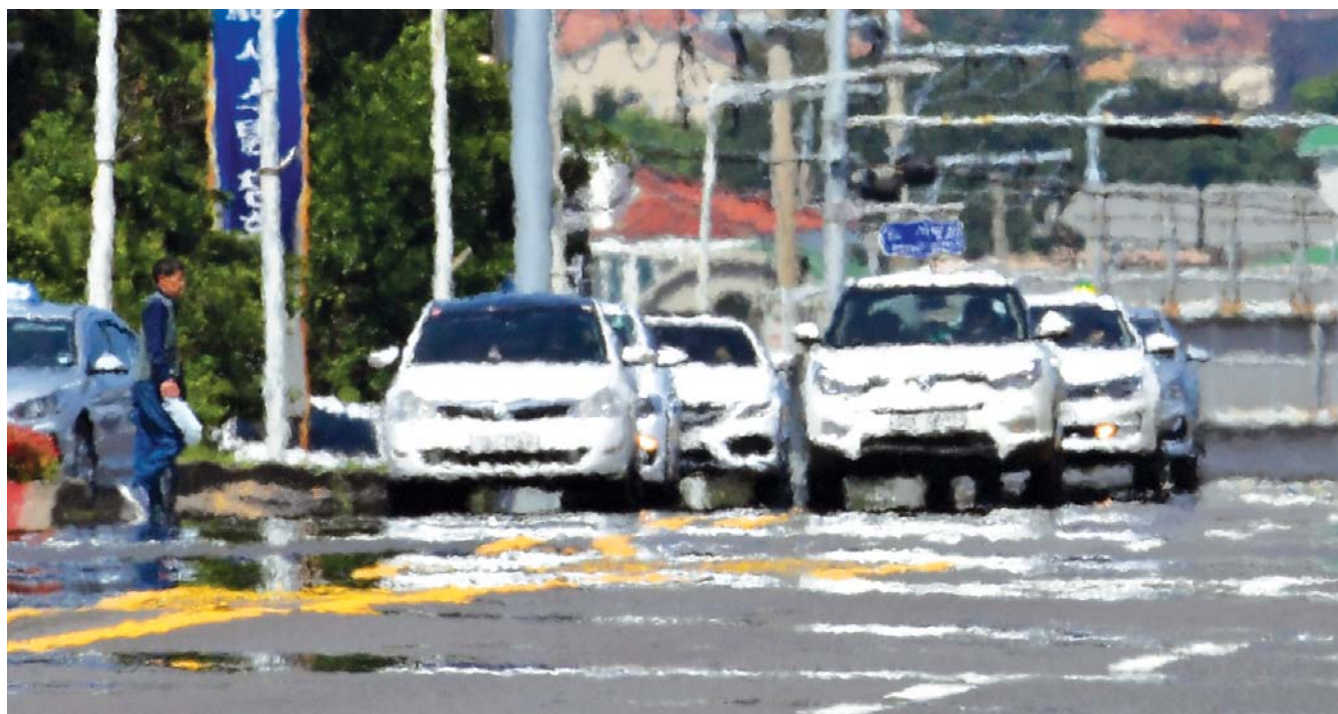
올해 처음으로 제주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9일 낮 최고기온은 의도 32.2℃, 오동 31.5℃, 구좌 32.9℃, 성산수산 32.2℃, 표선 31.5℃, 한림 31℃, 남원 31℃ 등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더위가 집중된 제주도 북부와 동부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발효된다.

이번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33일 가장 늦게 발효됐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내리진 지역에서는 당분간 낮 기온이 33℃ 내



폭염...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30℃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 북부·동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무더위가 이어진 29일 몇몇 차량들이 복사로 이글거리는 제주시 노형동 일주도로 아스팔트 위를 지나고 있다. 강희만기자

곳이 있겠으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3일 제주시에서 시작된 열대야는 6일째 계속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LPG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사항

LNG공급 경제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며 제주도민 전체의 55%만이 LNG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LNG공급 소외지역의 지원 정책과 LPG 사업자 중 전체 공급량의 55%의 감소에 따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1 LPG 미공급 지역 지원 정책**
 - ☐ 에너지 바우처 확대 : LPG용기 지원, 구매할인 카드 운영
 - ☐ 저소득층 LPG시설개선사업 지원확대
- 2 제주특별자치도 구 군지역(남/북제주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LPG업계 우선 배정**
- 3 LPG사업 과다 경쟁 방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 신규 허가 제한 및 총량제 시행 : 폐업 지원금 및 재취업 교육비 등 지원
 - ☐ 노후 LPG 저장고 시설 개선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LPG저장고 외곽 이전
가) LPG판매점 시설 사업부지 확보 및 제공 나) 노후 시설 개선 보조 사업등의 시행
- 4 도시가스 전환 시 상호 충돌 방지를 위한 정책**
 - ☐ 가스안전 사고 발생 방지 : 양 사업자 입회 후 인수인계
 - ☐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LPG공급 시설에 대한 보상 의무화
- 5 LPG/LNG 균형발전**
 - ☐ 예산 및 행정적 동등한 지원
 - ☐ 가스산업발전위원회 설립 조례 제정